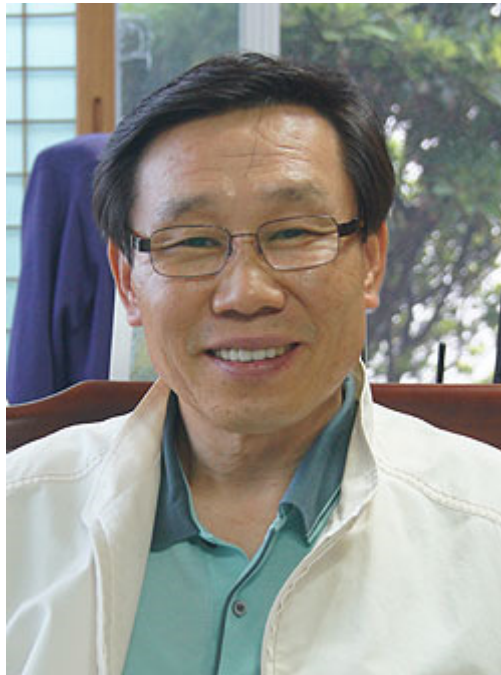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역대 목회자들 뛰어난 업적 남겨 사료 1만점 보관"

손재운 모슬포교회 담임목사 인터뷰

데스크승인 2013.06.18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모슬포교회(담임목사 손재운)는 2009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사료전시관을 개관하고 100년사를 편찬했다.

앞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모슬포교회가 1924~1939년까지 기록한 '당회록'(堂會錄)과 1934~1962년에 작성한 제주노회 '노회록'(老會錄)을 역사 유물로, 교회는 유적 교회로 지정했다.

당회록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 운영을 위해 회의한 내용이다. 제주노회는 교회 모임의 연합체로 일제시대의 이 기록물은 기독교역사 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이해하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손 목사는 "100주년 사료전시관에는 약 1만장의 각종 문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의 초기 선교 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를 토대로 독립운동은 물론 4·3, 6·25전쟁 등 당시 상황

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시대에 수기로 기록한 교인명부와 세례 문답, 헌금장, 목사 이력서 등은 교회의 유물을 넘어 지역사회와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해 당시 역사를 이해하는 귀중한 사료”라고 강조했다.

사료관에 전시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통계표를 보면 1939~1940년 모슬포교회 교인 수는 345명으로 도내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손 목사는 “교회마다 옛 사료를 보존하는 사례가 드문데 모슬포교회는 역대 목회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 사료가 잘 남게 됐다”고 말했다.

실례로 1927년 4대 목사로 부임한 최흥중 목사는 1933년에 광주에서 경성(서울)까지 행진을 벌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재활시설 확장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고 한국나병예방협회 창립한 독립운동가이자, 빈민 선교의 선교자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맡아 교육과 복지·의료·선교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기면서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끝으로 “일제시대 당시 도내 공립학교는 3곳에 불과했는데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도 학교(광선익숙)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민족의 자긍심과 독립심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인재 육성에 힘써 왔다”며 말을 맺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